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4권 제1호(2000)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Vol. 4, No. 1 pp 122~131

栗에 對한 韓醫學的 文獻考察

이수진, 김명동, 남용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 Oriental Medical Study on the *Castanea mollissima Bl.*

Lee Soo-Jin, Kim Myung-Dong, Nam Young-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Sang Ji University
* Dept. of Oriental Medicine, Woo Suk University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try to figure out why chestnut belongs to kidney channel, from the viewpoint of five elements theory. After studying chestnut's property, flavor, channel tropism, main cure ability, prescriptions, shape, sweet, and prohibitions, I came to the following results.

1. Property of chestnut is warm and has no toxicity, so it is less related than kidney property.
2. Flavor of chestnut is salty and sweet, so it has some relation to kidnety and spleen properties.
3. Channel tropism of chestnut enters mainly into kidney channel, and then spleen and stomach channels.
4. Chestnut controls kidney function of storing the essence of life, determining the condition of bone and marrow, conduction water metabolism, affecting reasoning activity, and controls activity of nine openings of body. It also has effects on functions of spleen, intestines and stomach.
5. Prescriptions including chestnut is similar to that of human brain, it is possible to reason out that chestnut has some relation to human brain.
7. As flavor of chestnut flower is similar to that of spermatic fluid, so it has som relation to kidney property.
8. As chestnut has property of blocking *qi* and it causes spleen, stomach and colon system to be confused, so it is suggested that persons with weakende spleen and stomach be not allowed to take in.

Ⅰ. 緖 論

栗(Castanea crenata/chestnut)은 참나무과(Facageae)의 낙엽교목인 밤나무(Castania crenata var. dulcis)의 種仁으로 藥用, 또는 食用으로 使用된다[1]. 漢字로는 栗이라고 하는데이 글자는 《說問》에 따르면 나무 위에 꽃과 열매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을 본따서 만든 象形文字라고 하며 《梵書》에서는 栗을 篤迦라 한다고 한다[2-3,5].

栗에 대한 本草書의 최초의 기록은 《名醫別錄》[5]으로 "栗, 味鹹溫無毒, 主益氣, 厚腸胃, 補腎氣, 令人忍飢."라 하였다. 性味는 溫[6-11], 鹹[12]하고, 간혹 甘味[13-14]라 하였으며 歸經은 脾胃腎經[9,15,16,17,18]이고 效能은 主益氣[5, 19-21], 厚腸胃[5, 19-24], 補腎氣[5, 19-24], 令人耐飢[19-20, 22-24, 25, 26, 27]하여 주로 腰脚不遂, 小兒疳瘡, 丹毒惡毒之瘡, 筋骨斷碎疼痛, 破冷痃癖, 馬咬成瘡, 熊虎爪傷, 金刀釜傷, 眼赤疼痛, 腸鳴泄瀉, 衄血不止 등을 治療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異名으로는 《唐本草》[21]에 '板栗', 《滇南本草》[13]에 '栗果'라 되어 있다.

《黃帝內經》에는 李, 杏, 棗, 桃, 栗의 다섯 가지 과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栗에 대하여서는 《素問·五常政大論篇》에서 "靜順之氣, 藏而勿害, 治而善下 …… 其令寒, 其臟腎 …… 其穀豆, 其果栗"이라 하였으며, 《素問·臟氣法時論篇》에서 "脾色黃, 宜食鹹, 大豆豕肉栗藿皆鹹."이라 하여 味가 鹹하여 五行중 水에 配屬되며 五臟 중 腎에 該當한다고[34] 하였다.

韓醫學에서는 일찍부터 統合體·恒動觀을 주로 한 고유의 이론체계가 있었는데 그 발전과정에서 認識上의 설명이나 해석의 이론적 도구로서, 또한 경험을 歸納시키는 수단으로서 당시 유행했던 陰陽五行觀이 도입되었다. 東醫學에 陰陽五行現狀이 응용됨으로써 그때까지 人類가 長期에 걸쳐 疾病과 싸워온 實踐을 기초로 하고, 또 자연계의 변화와 인체의 변화의 統一性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相互制約·相互依存이라는 辨證法的 觀點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東醫學의 이론적 체계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일찍이 殷代의 갑골문자인 卜辭 가운데 東·西·南·北·中의 五方槪念이 있었는데, 《尙書》에서는 오행의 추상적 특성을 더욱 명확히 述하고 또한 그것을 五味와 관련시켜 기재하였다. 內經에서는 자연계에 있어서의 물질의 온갖 변화는 모두 木火土金水의 五種類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相互連繫·相互作用이라는 통일적 관계가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오행의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며 다른 한면으로는 그 개념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유사한 사물로 분류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갖 사물과 현상은 모두 그 특징에 따라 각각 오행의 어느 하나로 분별배당된다[28].

栗은 그 性味가 鹹, 溫하며 腎經으로 入하고 補腎하는 效能을 가지며 腰脚不遂 등을 治療하는 것으로 볼때 五行 중 水로 配屬한 것에 대한 聯關性이 있으나 五果의 五行配屬 중 栗을 腎果로 配屬하였는지 보다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기위하여 그 模樣, 形態, 性味, 歸經, 效能, 主治, 禁忌, 栗이 들어가 있는 處方 등의 자료를 고찰하여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의 必要性

五行은 古人들이 長期的인 生活과 生産活動 中에 얻은 物質世界에 대한 素朴한 認識인데 古人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人類가 依存하여 生活·生存하는 基本物質이라고 생각하였다. 古人들은 周邊의 여러 사물을 그 抽象的 特性에 따라 五行에 配屬시켜 五味, 五氣, 五色, 五臟, 五官, 五畜, 五穀, 五菜, 五果 等으로 區分하고 있다. 人體의 臟腑, 器官의 五行配屬 및 五味, 五氣 등의 抽象的인 五行配屬에 대하여서는 많은 硏究가 進行되어 왔으나 五畜, 五穀, 五菜, 五果의 五行配屬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이 配屬되어지는 까닭에 대한 硏究가

不足한 채 받아들여져 五行으로 分類하여 配屬하게 된 관련된 많은 資料가 단편적인 知識으로만 이해되고 그에 대한 活用이 全無한 상태에 있다.

최근 健康에 대한 사회적인 認識이 날로 增大되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많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반향으로 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의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옛부터 선인들은 醫食同源이라는 認識 하에 그 지역에서 나는 五穀과 五菜, 五果를 常食함으로써 健康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生活方式은 五行을 根本으로 하는 認識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온 生活의 지혜이다. 古人들은 어떠한 이유로 五果 중에서 栗을 腎果에 配屬하게 되었는지를 古代 文獻을 통하여 자세하게 考察함으로서 韓醫學에서 治療의 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는 藥物에 대한 機能과 效果를 해석하는 方法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腎臟의 機能과 관련된 藥物로서 栗을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며 韓醫學의 理論體系로서 五行의 實用的인 活用度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研究方法

藥性을 鑑別하는 方法으로 形色氣味로 각각의 特性을 木火土金水의 五行으로 分類하고 臟腑에 配合하여 百病을 治療하니 이것이 藥理의 基本 原理이다. 그러나 藥物의 形色氣味와 藥理가 相互 聯關이 있지만 形色氣味로써 藥理를 論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藥物의 藥性을 통해 治療한다. 무릇 藥의 形色氣味를 鑑別하는 것은 藥性을 考察하기 위한 基礎資料이다[10].

栗의 效用과 特性을 形, 色, 氣, 味, 歸經, 效能, 主治를 歷代 醫家들의 書籍 및 近現代 本草書를 中心으로 그 내용을 硏究하여 五行과의 相關性을 조사하였다.

Ⅳ. 本 論

五行은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作用을 말한다. 五行의 "五"는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가지 要素를 말하고 "行"은 運行하여 멈추지 않음을 뜻한다. 五行의 最初 含意는 人類의 日常生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木火土金水라는 다섯 가지 物質自體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後에 歷代 思想家들이 이 다섯 가지 物質의 特性을 "木曰曲直 曲直作酸" "火曰炎上 炎上作苦" "土曰稼穡 稼穡作甘" "金曰從革 從革作辛" "水曰潤下 潤下作鹹"으로 抽象化시켜, 다섯 가지 物質의 特性을 각종 四物을 추단연역하고 歸納하는 基本法則으로 삼았다.[29]

五行은 物質的인 構成 要素가 아니라 氣가 가진 이런저런 성격상의 要素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그것은 氣가 가진 움직임의 성격, 그 색깔등을 설명해주는 구성 요소로서, 物質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氣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五行을 原始的인 構成要素로 오해하는 것은 한때 중국에서 유행했던 유물론적인 五行思想이 너무나도 깊게 파고들어서 五行思想을 많이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五行은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事物 또는 다섯 가지 事物로 상징되는 그 무엇이다. 五行理論은 이 宇宙에 다섯 개의 構成要素가 있다고 말하는 理論이 아니다. 宇宙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存在 이른바 要素存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섯 개라고 보는 理論이 五行思想이 아니라 宇宙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要素存在들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다만 그것들을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따름이다. 그렇게 해야만 宇宙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도 宇宙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이 또한 五行理論이다.

어떤 事物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存在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認識 作用의 限界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두 認識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要素存在들을 어떤 식으로든 분류함으로써 그 事物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要素存在들은 다섯 갈래의 독특한 分類法에 따라 갈래지어졌고 그 갈래에 따라 그 事物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五行理論이다.[30]

온갖 사물과 현상은 모두 그 특징에 따라 각각 오행의 어느하나로 분변배당된다. 오행 현상에서 水의 특성은 寒冷, 就下, 滋潤, 閉藏의 개념이 있다.[31]

특히 사물의 氣가 가진 下向運動性을 가리킨다.[30]

五行이 抽象的 屬性으로써 事物을 추연하는 具體的인 方法으로 取象類比와 推斷演繹法이 있다. 取象類比에서 "取象"은 事物의 形狀(性質·作用·形態 등) 중에서 그 事物의 本質을 반영할 수 있는 特徵을 취하는 것을 뜻하며, "類比"는 五行의 抽象的 屬性을 基準으로, 어떤 事物의 特徵을 비교하여 그 事物의 五行屬性을 確定하는 것으로 論理學的 側面으로 보면 "取象類比"法은 共通되는 特徵에 속하는 개체를 集合시키는 分類法이다. 추단연역법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事物의 五行屬性을 確定하는 方法이다.[29]

생물의 생존과 발전이 모두 천지 음양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자연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인간도 천지 음양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류와 자연계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연계와 인간을 조화적이 통일체로 간주하여 인간의 형체나 기능이 자연계와 相似的으로 대응한다는 形相的인 對應과 시간적 변화에 의거하여 대응한다는 천인의 動的(시간적)對應 이론은 일찍기 내경시대의 인식이였다.[31]

名稱과 形態로 살펴보면 栗이라는 글자는 《說問》에 따르면 나무 위에 꽃과 열매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을 본따서 만든 象形文字이다[32].라고 하였고, 凡仁者 皆降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就下하는 水의 특성이며, 栗子를 싸고 있는 속껍질(栗荄)과 外果皮와 외과피의 외측에 殼斗狀의 總苞(栗毛毬)로 구성이 되여 있어 그 模樣이 人體의 頭腦와 相似하여 形相的인 對應으로 살펴보면 腦와의 일정한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味라하면 辛·甘·酸·苦·鹹의 五種의 藥味로 대별하고 약미가 다름에 따라 작용도 다른데 鹹味는 軟堅·潤下한다. 예로서 海藻와 牡蠣는 나력을 治하며, 芒硝는 燥結된 대변을 潤下한다.[33]

腎은 五行 중 水에 속하는데[34①] 水는 물이 滋潤하고 向下하는 特性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며 水의 潛藏하는 特徵이 身體에서는 人體 水運의 의미를 형용하게 된 것이다. 인체에서 水運의 대표기관은 腎이므로 水氣를 바탕으로 한 腎氣는 冬에 旺하며 濕을 畏하며 寒을 일으키고 유연하는 본성이 있고 症候는 二陰에 잘 나타나고 色으로는 黑色으로 나타나며 鹹味와 관계가 있게 된다[34②]. 人體에서는 水氣를 鹹味의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 鹹味의 음식물이 인체 내에 들어가면 腎臟을 營養하며 骨髓의 機能을 生하고 이는 水生木의 相生法則에 의하여 肝臟의 機能을 生하게 하는 根源을 發生하게 된다[34③].

歷代 本草書의 醫家들은 대부분 栗子의 味를 鹹味로 언급하였는데 鹹味는 腎에 配屬되며 水氣를 涵養하는 것이므로 腎果로서의 栗은 鹹味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34)① 《素問·痿論》 腎者 水臟也

34)② 《素問·陰陽應象大論》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腎主耳, 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體爲骨, 在臟爲腎, 在色爲黑, 甘勝鹹
《素問·宣明五氣》 鹹入腎

34)③ 《素問·陰陽應象大論》 北方生寒, 寒生水, 水生鹹, 鹹生腎, 腎生骨髓, 髓生肝, 腎主耳, 其在天爲寒, 在地爲水, 在體爲骨, 在臟爲腎, 在色爲黑, 甘勝鹹

栗子가 甘味를 나타낸다고 한 醫家들은 실제의 味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당질 34.5%, 녹말 25%, 유리당분 1.5~2% 함유하고 있어 甘味를 띠게 된다.

味의 그 본래의 뜻은 物質 中의 精微部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物質의 本性을 反影하는 것인데 歷代 本草書를 살펴볼 때 藥味에 대한 記載가 藥效에 대한 記載보다 비교적 늦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藥效에 대한 認識이 먼저 있은 후에 藥味에 대한 認識이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藥味는 藥效와 대단히 關聯이 깊으며 藥味에 대한 認識이 藥效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本草에 있어서 藥味와 실제의 味가 다른 境遇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藥味가 實際의 味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藥效로부터 藥味가 나왔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根據하여 考察해 보면 栗子의 味를 鹹하다고 한 것은 《黃帝內經》의 基本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腎果에 속하는 栗을 五行 중 水의 味인 鹹에 配屬시키고, 그 效能, 主治 面에서 관찰한 臨床經驗에 根據하여 抽象的으로 이끌어낸 藥味라고 생각된다.

本草의 歸經理論은 臟象, 經絡理論의 基礎下에 藥物의 治療效果에 주로 根據하고 기타 各種 藥物의 形, 色, 氣(臭), 味 等의 藥物特性과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발달한 것이다. 《黃帝內經》에서는 각 藥物의 五色, 五味, 五氣를 五行學說 및 五臟理論과 關聯시켜 敍述하였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 一貫되게 歸經을 결정하는 要因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形, 色, 氣, 味 등의 藥物特性 중 어느 하나 혹은 몇 가지가 관련되어 歸經이 정해졌으며 最終的인 決定은 治療效果, 즉 效能主治로 결정되어졌다. 또한 藥效나 性味가 복잡하게 發達함에 따라 藥物의 歸經理論도 한 經이 아닌 여러 經으로 歸經하게 되어 主次의 區分이 생기게 되었다.

栗子의 歸經에 대한 歷代醫書 및 近現代 中國醫書의 論述을 살펴보면 專主腎經하느냐 脾胃經으로도 兼入하느냐의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歸經에 있어서 栗이 腎果에 配屬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歷代 本草書의 醫家들이 대부분 腎經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栗이 腎이나 腎이 關與하는 生理的인 內容에 대하여 일정한 作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效能上에서 補腎, 强筋骨하는 內容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栗의 藥味가 鹹하므로 腎經으로 歸經시킬 수 있으며 健脾胃하는 效能이 있으며, 甘味를 띠는 것으로 因하여 兼入脾胃經한다고 言及하였다고 생각된다.

생리적 측면의 腎藏精, 腎主水, 腎通於腦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人體 生命活動의 物質基礎로 腎이 精을 藏한다는 것은 腎이 人體의 각 部分의 營養의 源泉力인 精을 貯藏하여 調節한다는 槪念이다. 精은 人體의 發育, 成長과 관련이 있으며 生育繁殖을 주관하게 되는 것으로 老衰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胎兒가 母胎에서 형성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精이 생기며 이를 基礎로 腦髓, 骨格, 筋脈, 皮肉, 毛髮 등 形體組織이 점차 생장하여 완전하게 되는데 이 精은 生命의 基礎로 先天의 眞氣 즉 命門之火에 존재하여 出生 후에는 위로 올라가 後天의 胃氣와 結合함으로써 水穀이 胃로 들어가 精微로운 물질을 化生할 수 있게 되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생해지게 된다.

사람의 生殖能力과 生長發育의 과정에서 腎의 精氣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精은 腎에 간직되고 腎이 간직하고 있는 精은 氣로 化할 수 있어 腎精에서 化生되어진 腎藏精氣의 盛衰는 인간의 生殖 및 生長發育의 能力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人體의 生殖能力과 生長發育의 과정은 곧 腎臟精氣의 자연적인 盛衰의 반영이 된다[34④].

34)④《素問·上古天眞論》女子七歲腎氣盛,

또한 腎에 간직된 精은 髓를 生하며 髓는 骨을 滋養한다. 《黃帝內經》에서는 腎이 骨과 髓의 生長에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고 相互資生的인 關係에 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으며[34⑤] 북방에서 수를 한을 생하고, 한은 수를 생하며, 수는 함을 생하고, 함은 신을 생하고 신으니 골수를 생하여 腎의 鹹과 骨髓와의 相互關聯된 有機的 協力生理作用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腎은 精을 간직하고 精은 髓를 生하며 髓는 骨을 滋養[34⑥]하는데 髓가 骨 中에 소장되어 있기[34⑦] 때문에 骨髓라고 한다. 그러므로 腎精이 充足하면 骨髓가 充盈하여 豊富하여지며 骨髓도 生長, 堅實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骨髓가 充足해 있으면 骨格을 强壯케 하지만 만약 腎精이 虛少하여 骨髓의 化源이 부족해지면 骨格을 充分하게 滋養하지 못하게 되어 骨髓가 萎弱, 無力하게 되고 심하면 發育不全이 되기도 하며 小兒에 있어서는 天門遲滯 骨軟無力의 病理現狀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骨痿의 發生도 骨髓의 不足에 의한 것으로 腎氣의 熱에 의한 것이라 보는데 腎이 熱을 받으면 腎陰을 損傷消耗하기 때문에 骨이 枯하여 髓가 衰하는 結果가 되어 발생하게 된다[34⑧].

이상에서 살펴보면 腎臟精하는 生理機能은 人體生命活動의 物質基礎가 되어 人體의 生長, 發育, 生殖 등의 基礎가 되는 精을 腎이 貯藏함으로써 人體의 각종 生命活動을 正常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機能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栗子의 補腎, 補腎氣, 强筋, 强筋骨하는 效能은 모두 腎臟精하는 作用의 一部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腰脚無力, 腰脚不遂, 小兒脚弱 三四歲不能步行, 筋骨系疾患, 老人腎虛로 인한 遺精, 帶下 等證을 治療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腰는 腎之府[34⑨]이고 腎은 主骨生髓하므로 腎精이 虧虛하면 骨髓가 充滿되지 않아 腰痛, 腰膝無力하는 症狀이 나타나게 되며, 腎이 熱을 받으면 腎陰을 損傷消耗하기 때문에 骨이 枯하여 髓가 衰하는 結果가 되어 腰脊의 運動回轉不能과 二足이 痲痺하여 直立不能이 되는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腎에 문제가 있으면 腰脊不可以俛仰屈伸[34⑩], 腰脊不擧[34⑪] 等의 症狀도 나타나게 되므로 補腎, 補腎氣하는 效能을 가진 栗子가 腰脚無力, 腰脚不遂 등 腰部疾患에 效用이 있음으로 인하여 腎果로 분류될 수 있다.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腎氣平均, 筋骨勁强, 故眞牙生而長極. 四八筋骨隆盛, 肌肉滿壯. 五八腎氣衰, 髮墮齒槁. 六八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頒白. 七八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臟衰, 形體皆極. 八八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 乃能瀉. 今五臟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 而無子耳.

34)⑤《素問·逆調論》腎者水也, 而生於骨, 腎不生, 則髓不能滿.
《素問·五臟生成》腎之合骨
《素問·陰陽應象大論》腎生骨髓, ……, 在體爲骨, 在臟爲腎.
《素問·宣明五氣》五臟所主, ……, 腎主骨.
《素問·六節臟象論》腎者, 其充在骨.
《素問·痿論》腎主身之骨髓.

34)⑥《素問·解精微論》髓者 骨之充也

34)⑦《素問·脈要精微論》骨者 髓之府

34)⑧《素問·痿論》腎氣熱, 則腰脊不擧, 骨枯而髓減, 發爲骨痿.

34)⑨《素問·脈要精微論》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

34)⑩《靈樞·本神》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34)⑪《素問·痿論》腎氣熱, 則腰脊不擧.

腎은 膀胱과 表裏가 되어 人體의 水液代謝를 調節하고 管理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腎은 水臟[34⑫]이라고도 한다. 人體水液의 신진대사는 두 方面의 過程을 포괄하고 있는데 하나는 飮食物에서 由來한 體內의 水液이 脾의 傳輸, 肺의 肅降機能을 通하여 전신에 輸布되고 下注하여 腎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腎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水液의 升淸降濁으로 표현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각 組織에서 이용되어진 후에 나오는 代謝産物인 水分을 膀胱을 통하여 體外로 排出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人體水液代謝의 平衡을 유지한다.

이러한 水液代謝 방면에서의 상대적 平衡狀態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肺氣의 宣降과 通調水道, 脾氣의 水濕을 運化, 升淸하는 機能 외에 반드시 腎陽의 氣化作用을 통해서야 비로소 正常的인 人體의 水液代謝가 이루어진다. 人體 各組織의 水分은 반드시 腎陽의 推動에 의해서 蒸發轉變되어 代謝에 쓰여진 다음에 쓸모없는 水分으로 體外로 排出되기 때문에 腎主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腎臟은 肺, 脾와 더불어 水液代謝의 調節에 중요한 作用을 하게 되는데 만일 腎中의 陽氣가 부족하게 되면 氣化機能이 失調되어 水液代謝의 調節機能이 障碍되므로 水腫, 小便不利 등증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腎은 司二陰한다고 하는데 二陰이란 前陰과 後陰을 가리키는 말로 前陰은 즉 生殖器로 排尿機能과 生殖機能을 가지고 있고 後陰은 즉 肛門으로 糞便을 排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尿液의 底留와 排泄을 담당하는 것은 膀胱이지만 기능은 腎陽의 氣化作用에 의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까닭에 腎氣가 蒸化作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小便이 通利하지 않게 되며 腎陽不足으로 인한 陽痿 등증이 나타나며 腎氣가 固攝하지 못할 경우에는 遺尿症狀이나 小便失禁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大便의 排泄도 腎陽의 溫厚作用에 의하여 統制를 받기 때문에 腎氣가 衰弱한 患者에게서 보통 大便의 異常變化가 야기되는데 이를 보면 老年期의 習慣性 便秘는 腎陽不足에 속한다고 보아 腎寒氣滯하여 大便乾結한 증을 治療하고 命門火의 衰少로 오는 五更瀉도 腎陽의 부족으로 보아 補火濕土하는 방법으로 治療하며 심하면 大便失禁 등의 症狀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栗子의 效能 중에 補腎氣, 止泄瀉하는 작용이 있어 痢疾, 腸鳴泄瀉, 赤白帶下, 內寒暴泄, 遺精, 浮腫, 尿少 等을 治療한다고 하는데 이는 腎臟의 腎主水하여 水液代謝를 調節하는 生理作用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腎은 骨髓를 主管하며[34⑬] 髓는 모두 腦에 屬한다[34⑭]고 하여 腎과 骨髓와 腦와의 相互聯關이 깊다. 腦는 諸髓의 會이며 髓도 또한 왕성한 腎氣에 의하여 腎精이 충만하게 되어 化生한 것이므로 腎은 단지 五臟六腑의 근본일 뿐 아니라 骨髓와 腦의 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腦는 바로 髓가 모이는 場所[34⑮]이고 景岳은 이에 대해 "凡骨之有髓 有腦最巨 故腦爲髓之海"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볼 때 腦와 髓는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同出一源的으로 볼 수 있다. 腦와 髓의 生化之原은 先天의 腎臟精氣와 有關하며 後天의 水穀精微와도 有關하며[34⑯], 腦는 精이 먼저 生한 후에 精에 의하여 腦가 발생한 것[34⑰]으로 腎精이 命門火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上注하여 頭部의 百會穴과 風府穴 사이에 모인 것이다.

34)⑫《素問·痿論》腎者, 水臟.

34)⑬《素問·痿論》腎主身之骨髓

34)⑭《素問·五臟生成論》諸髓者, 皆屬於腦.

34)⑮《素問·五臟生成論》諸髓者, 皆屬於腦.

34)⑯《靈樞·五隆津液別論》五穀之精液化合而爲膏者, 內滲入于骨空, 補益腦髓.

34)⑰《靈樞·經脈篇》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榮, 筋爲强, 肉爲塞,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而通, 血氣乃行.

新陳代謝過程에서 臟腑의 氣機升降運動이 重要하며 그 중에서도 腎이 가장 중요하여 氣機升降의 根本이 되며 腎은 先天之本으로 五臟의 陽은 이것이 아니면 升發할 수 없고 五臟의 陰은 이것이 아니면 滋養을 할 수가 없다.

精은 變化하여 血이 되며 精이 充足하면 血이 旺盛하고 精血이 充足하면 五臟의 陰을 滋養하여 五臟의 陽을 升發할 수 있는데 이는 腎精의 升이 된다. 腎精은 生長發育의 根源이 되고 水液을 主하여 升淸降濁하여 水液代謝를 調節한다. 이 腎精은 骨을 主하고 髓를 生하며 腦에 通하는데 精髓가 위로 올라가 腦를 營養하는 것이다[34⑱].

그러므로 머리는 腦를 간직하기 때문에 精明之府라 하였고[34⑲] 또한 뇌를 元神之府라 하였는데[34⑳] 精明이란 精神思維活動의 의미로 따라서 腦가 精神思維活動을 주관하게 되며 腦의 機能은 腎精의 부단한 生成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의 精神思維活動은 神明을 주관하는 心 뿐만 아니라 腎精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된다. 그러므로 腎精이 充足하면 生髓機能이 旺盛해지고 髓가 충만하여지면 腦로 上通하는 까닭에 腦가 精神思考活動을 주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腎精機能의 한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腎과 精과 骨의 정신활동에 대한 표현을 腎이 志를 主管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34㉑] 여기에서 志는 事物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堅定不已의 표현이며 즉 腎精이 充足하면 意志가 堅强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腎精이 부족하면 意志가 衰退하고 사물에 대하여 健忘이 심해짐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腎精이 풍부할 경우에는 髓海와 精力이 충만해져서 知力이 강장되며 耳目이 聰明해지고 동작도 민첩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腎出技巧의 표현이 된다고 보여진다.

髓海가 充足하면 身體의 機能이 强健하지만 髓海가 不足하게 되면 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인체에 이상을 야기하게 된다[34㉒]. 腦髓는 腎精이 變化한 것으로 이에 의해 腦髓의 正常과 病態는 腎臟精氣의 盛衰에 따라 診斷되며 臨床上 腦와 骨髓의 不足에 의해 産生되는 症狀에는 반드시 補腎의 治法으로 治療하여 "腎充則髓實"의 관점을 응용하여야 한다. 즉 補腎의 범위 내에 補腎과 補骨髓의 개념을 포함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黃庭經》에서는 "泥丸百節皆有神"이라 하였고 또 "一面之神宗泥丸, 泥丸九眞皆有房"이라 하여 腦에 神이 居處하는 9개의 방이 있다고 하였고 雙丹宮, 明堂宮, 泥丸宮, 流珠宮, 大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으로 命名하였으며 또한 腦에서 面部의 髮, 腦, 眼, 鼻, 耳, 舌, 齒로 腎이 發顯되는 것에 따라 각각의 名稱을 사용하고 있는데 髮로 나오는 神을 太元, 腦로 나온 신을 泥丸, 眼으로 나온 神을 靈玄, 鼻로 나가는 神을 靈堅, 耳로 나가는 神을 幽田, 舌로 나가는 神을 正倫, 齒로 나가는 神을 羅千이라 하여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함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腦가 精神思維活動 뿐만 아니라 眼, 鼻, 耳, 舌, 齒, 髮 등의 기능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기능도 함을 알 수 있으며《靈樞·海論》에서는 "髓海有餘則勁强多力 自過其道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一無所見 怠惰安臥"라 하여 髓의 不足으로 인한 병증에 視力, 聽力이 그 正常을 잃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4)⑱《醫學入門》 上至腦下至尾底, 皆精髓升降之道路

34)⑲《素問·脈要精微論》

34)⑳《本草綱目》腦爲元神之府

34)㉑《靈樞·本神》腎藏精, 精舍志.
《素問·宣明五氣》腎藏志.
《素問·調經論》腎藏志.
《素問·解精微論》志者, 骨之主也.

34) ㉒《靈樞·海論》腦爲髓之海, ……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

특히 腎이 耳를 主한다고 하여 腎의 精氣는 위로 耳竅와 통하므로 귀의 聽覺機能과 腎臟精氣이 盛衰와는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腎의 精氣가 充滿하면 聽覺이 예민해진다고 한다[34] ㉓. 그러므로 腎精이 不足할 경우에는 耳鳴, 聽力減退 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노인들은 대개 腎의 精氣가 虛衰하여 弱하므로 耳聾하여 失聽하게 된다. 또한 눈의 검은 동자는 腎水에 屬하고 있어 腎虛하게 되면 瞳孔散大 및 縮小, 혹 백내장증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腎精과 髓, 腦, 耳, 眼 等의 관계에 의하여 頭面部 및 九竅에 관련된 病症에도 補腎과 補骨髓의 槪念을 考慮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栗子의 각종 主治症 중 眼赤疼痛, 衄血 等은 補腎함으로써 腎精을 補하여 이것이 腦髓에 作用함으로써 나타나는 效能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栗子의 補腎하는 效能이 腦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각종 腦髓不足으로 인한 疾患에 應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栗子 이외의 栗과 관련이 있는 栗楔 栗殼(栗外果皮) 栗毛毬 栗花 栗樹皮 栗根등의 효능과 오행의 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栗楔의 衄血不止등의 治血에 효과와 栗茨가 주름살을 펴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骨鯁在咽을 치료한다는 효능은 신과로서의 관련성를 찾을 수가 없고, 栗殼은 平澁하고 黑色을 띠므로 固攝收斂作用이 더욱 强하여 鼻血不止, 瀉血 등을 治療하고, 특히 解人蔘하는 效能이 우수하다는 점 역시 신과의 관련성이 적었으며 栗毛毬의 效能이 火丹瘡毒腫[1, 8-9, 21, 35, 24-25], 止反胃及消渴 瀉血[22]한다 함은 栗毛毬가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膜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바깥쪽의 瘡腫을 치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止反胃及消渴瀉血의 효능은 수에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

栗花는 栗의 꽃을 말하는데 꽃은 火氣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發散하는 性質이 있기 때문에 瘰癧을 治療한다고 하며 栗樹皮는 溪毒, 沙蝨, 癰瘡毒, 火丹瘡毒을 치료한다는 사실은 수와의 관련성이 없다.

栗根은 율의 뿌리를 말한다. 酒煎하여 복용하면 治偏墮腎氣를 치료한다고 하는데 栗은 腎果에 속하며 그 중 뿌리이므로 그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腎을 補하게 되니 이는 下氣解毒하는 效能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Ⅵ. 結 論

栗이 五行 중 腎에 配屬된 理由를 糾明하기 위하여 形色, 性味, 歸經, 效能, 主治 등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栗은 人體의 頭腦와 相似하여 形相的인 對應으로 腦와의 일정한 關聯性이 있다.
2. 栗의 味를 鹹하다고 한 것은 그 效能, 主治 面에서 관찰한 臨床經驗에 根據하여 鹹에 配屬시킨 것이다.
3. 栗의 歸經은 主入腎, 兼入脾胃한다.
4. 栗은 腎의 藏精하고 主骨하고 生髓하며 主水하는 機能 및 腦部에 作用하여 精神活動 및 九竅의 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生理的인 機能이 있어 栗은 腎果에 속한다.

栗의 형태, 性味, 歸經, 效能, 主治作用을 살펴보면 腎果로 配屬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한편 栗의 味를 甘味라 하고, 歸經에 脾胃經이 言及되며 厚腸胃하는 效能이나 腸鳴泄瀉 等의 脾胃에 關聯된 主治는 또한 栗이 脾胃系統에도 作用함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많은 연구가 요구되여진다.

Ⅴ. 參考文獻

1. 本經逢原, 淸 張璐 著, 越小靑 裵曉峰 校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년, 157-158p

34) ㉓ 《靈樞 · 脈道》 腎氣通於耳 腎和則能聞五音矣

2. 中國營養食療學, 党毅 編著, 科學出版社, 北京, 1995년, 263p
3. 淄博本草, 趙亦成 等 主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년, 59-60p
4. 中藥大辭典, 江蘇新醫學院 編,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77년 1판, 1993년
5. 重輯名醫別錄, 梁 陶弘景, 那琦 謝文全 重輯, 國際書局, 1977년, 170p
6. 本草衍義, 宋 寇宗奭 撰, 顔正華, 常章富, 黃幼群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년, 132p
7. 飮食須知, 元 賈銘 著, 程紹恩, 許永貴, 尙貞一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년, 32p
8. 食物本草 點校本, 原題 元 李杲 編輯, 明 李時珍 參訂, 明 姚可成 補輯, 達美君, 樓紹來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년, 444-449p
9. 本草蒙荃, 明 陳嘉謨 撰, 王淑民, 陳湘萍, 周超凡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년, 313-314p
10. 編註 醫學入門, 明 李梴, 大星文化社, 서울, 1989년, 254p
11. 本草綱目拾, 淸 趙學敏 輯,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년, 293p
12. 食鑑本草(歷代中醫珍本集成 十九), 淸 費伯雄 撰(1883년),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上海三聯書店, 上海, 7p
13. 滇南本草, 蘭茂, 滇南本草定理助 정리, 운남인민출판사, 운남성, 1976년, 244-246p
14. 重輯神修本草, 岡西爲人 重輯,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灣, 중화민국53년, 405p
15. 本草求眞, 淸 黃宮綉 撰, 席與民, 朱肇和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년, 270-271p
16. 本草撮要(珍本醫書集成(二) 本草類), 裘吉生 原編, 王玉潤, 張伯訥, 何傳毅 審訂,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년, 48p
17. 中國藥膳學, 彭銘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년, 366-367p
18. 蔬菜的食療, 顧智章, 陳瑛 編著, 中國農業科技出版社, 北京, 1989년, 325-326p
19. 千金要方, 唐 孫思邈, 大星文化社, 1984년, 466p
20 千金翼方, 唐 孫思邈, 大星文化社, 1989년, 50p
21. 唐本草(新修本草), 唐 蘇敬, 尙志鈞 輯校,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安徽省(or 合肥市), 1981년, 444-445p
22. 原本 東醫寶鑑,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編, 南山堂, 서울, 1994년),710-711p
23. 鄕藥集成方 5, 동의학편집부 편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년/ 일월서각 발행, 1993년, 218p
24. 本草精華(韓國醫學大系 第十一冊), 著者未詳(年代 未詳), 麗江出版社, 서울, 1992년, 143p
25. 本草綱目, 明 李時珍, 文光圖書有限公司, 台北, 中華民國62년, 1001-1003p
26. 本草易讀, 淸 汪訒庵 撰, 呂廣振, 陶振崗, 王海亭, 唐氷忠 點校,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년, 271-272p
27. 隨息居飮食譜(歷代中醫珍本集成 十九), 淸 王士雄 撰(1861년),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上海三聯書店, 上海, 51p
28. 食物藥用指南, 揚景俊 主編, 知識出版社, 北京, 1991년, 158-159p
29. 배병철 :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77, p.82
30. 박 현 : 나를 다시하는 동양학, 서울, 바나리, pp198-200
31. 유도곤 : 생리학강의 익산 원광대학교출판부 1999, p.10, 245, 682-702, 761-762
32.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백가지, 이유미, 현암사, 1995년, p.500-509
33. 김현재 : 한의학사전, 서울 성보사, p.390
34. 楊維傑, 黃帝內經, 素問. 臺北, 國北出版社, 1981년
35. 本草品?精要, 明 劉文泰 等 撰, 商務印書館, 上海, 1956년, 772-773p